

기쁨속에 보아주신 종이생산설비

2025년 12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은산종이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들중의 하나가 종이공업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였다.

공장의 현관홀로 들어서시며 제지기술과 제지법을 우리 식으로, 우리 원료에 의거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다용도초지기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에서 설계하고 자체로 만든 다용도초지기의 국산화비중이 높는데 대하여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시고나서 앞으로 설비운명을 진행하면서 설비갱신사업도 잘하고 제지법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뇌리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식의 종이공업을 창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랑잎은 우리 나라에 흔하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이를 생산하면 원료걱정이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기술자료들도 내려보내주시고 가랑잎으로 종이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에는 지방에 있는 종이공장들에도 그런 생산공정을 꾸려놓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의 종이생산설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대단하다고, 도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종이공장을 건설한것은 잘한것이라고, 설비들도 도에서 자체로 만든것이 아주 좋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우리 식의 종이생산설비들을 두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우리의 힘,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만들어낸 명실공히 우리의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아름다운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철석의 의지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다.